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인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바다 위의 섬들을 연결하는 11개 다리 '일레븐 브리지'를 조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 완료된 남도대교, 둔병대교, 화양조발대교, 적금대교와 준공 중인 일레븐 브리지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 섬박람회 랜드마크 '일레븐 브리지' 조성 총력

여수 돌산-고흥 연결 다리 11개 중 7개 개통·4개 공사 한창 개막 시기 맞춰 임시 개통 '만전'...섬 관광 전성시대 '기대'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전까지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바다 위의 섬들을 연결하는 11개 다리 '일레븐 브리지(개요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바다 위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일레븐 브리지'는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바다 위의 섬들을 연결하는 11개의 다리다.

이 중 7개의 다리가 개통된 가운데 현재 4개의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이들 교량이 모두 개통되면 차를 타고 바다와 연안, 섬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섬 관광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수와 고흥을 1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레븐 브리지'는 화양에서 적금도를 잇는 ▲화양-조발 대교(사장교·854m) ▲둔병대교(사장교·990m) ▲남도대교(박스거더교·640m) ▲적금대교(중로아치교·470m)를 포함해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구간에 해상교량 4개와 화태대교, 백야대교, 팔영대교 등 3개를 잇는 교량이다.

현재 '일레븐 브리지'는 백야대교, 팔영대교, 적금대교, 남도대교, 둔병대교, 화양



조발대교, 화태대교 등 7개 다리가 완공된 상태다. 나머지 4개 구간인 화태에서 월호(아치교·611m)와 월호-개도(현수교·910m), 개도-제도(사장교·655m), 제도-백야

(사장교·615m)의 공사는 진행 중이며, 2027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 여건과 공사 안전 문제로 섬박람회 전 준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시는 '일레븐 브리지'가 오는 2026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이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박람회 개최 전 개통을 위

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섬박람회 개최 전 임시 개통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조기 준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박람회 성공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를 방문한 이정현 균형발전위 전략기획위원에게 '일레븐 브리지의 조기 완공 건의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는 등 조기 완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시장은 "백야도에서 화태도를 잇는 4개의 교량(총길이 2.26km)이 완공돼 일레븐 브리지가 완성되면, 해상교량과 남해의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할 것"이라며 "섬박람회 개막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여수시민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비타민C 가득” 신소득작물 ‘장성 레몬’ 첫 수확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 ...내년 수확량 100t 목표

장성군이 신소득작물 '장성 레몬'의 출하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재배에 나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삼서면 삼계리 농가에서 첫 수확 행사를 가졌다. 레몬은 음료부터 고급요리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는 아열대과일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인 등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항산화성분 리모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해지는 과일'로 정평이 나 있다. 신맛이 강하지만 섭취 후 혈액을 알칼리화해 '몸에 좋은 알칼리 과일'로도 꼽힌다.

국내에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며 국내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레몬에는 방부제와 왁스처리가 돼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레몬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성군은 2022년 전남도 신소득원에 특화단지 공모, 2023년 전남도농업기술

원 '맞춤형 미래전략소득작목 육성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삼서면 일원에 내륙 최대 규모 레몬재배단지를 조성했다. 군은 ▲이상기후 대비 내(耐)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스마트 팜 시설 도입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구축 ▲친환경 자재 투입 등 체계적인 지원도 펼쳤다. 현재 12농가가 3.9ha 규모로 장성 레몬을 재배 중이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7t으로 신세계백

화점 납품, 경북도 농산물 직거래행사, 온라인 직거래, 삼서농협 출하, 레몬 가공품 생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량 소비된다. 수확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100t까지 수확량을 늘릴 계획이 다.

김현종 장성군수는 "상품성과 경쟁력을 고루 갖춘 장성 레몬이 전남을 대표하는 아열대과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로 국가미래농업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이 장성 레몬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레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장성군 제공>

고흥군, 맞춤형 노인보건사업 서비스 '호평'

가정방문 주치의제·16개 읍·면 순회진료 운영

고흥군이 맞춤형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보건 업무의 다양성과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2개 과에서 3개 과로 조직 개편한 가운데 맞춤형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군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와 '16개 읍·면 무료 순회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건강(암)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

문보건 전담 인력 49명은 4천667가구 가정방문과 마을 경로당을 순회해 어르신들의 혈압·당뇨검사, 보건교육, 만성질환자 관리와 개인별 건강 위험 요인 파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 검사 1만3천300건, 치매예방 프로그램 26개소 240회기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파트너 300명을 양성했고, 7개 마을에서 치매 안심 마을을 운영해 지역사회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과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국회방문 국비 확보·현안 사업 건의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항엽 의원을 비롯해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 이인주 민주당 최고위원, 박정 예결위원장, 박지원·안도걸·조계원·안규백·김영진·서영석·장철민 의원(방문순) 등을 만나 광양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총사업비 3천450억원) ▲보훈회관 건립(총사업비 50억원) ▲다사 통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총사업비 58억원) ▲광양(IV) 공업용수도 공급(총사업비 3천240억원) 등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산불 예방대응 2년 연속 '최우수상'

산불 지상진화 통합지휘 경연대회 '우수상' 결정사

담양군은 "최근 영광에서 진행된 '2024년 산불 예방대응 평가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산불 예방 대응 평가는 '산불예방', '산불방지 홍보', '산불 대비 대응', '산불방지 협력도' 4개 분야, 7개 평가지표를 구성해 전년 22개 시·군을 평가한다. 담양군은 불법

소각 단속·산불 예방 캠페인 개최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진화 인력 교육 및 관계기관과의 훈련 등 산불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함께 진행된 전남도 주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전남도 산불 지상진화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는 담양군은 효율적인 전략 및 상황 지휘 능력을 보이며 통합지휘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연대회는 신속한 지휘 차량 전개 및 산불 진화 작전 수립 능력을 보는 통합지휘 분야와 산불진화차량과 간이수조 설치 등 산불기계화시스템 장비 운용 능력을 보는 지상진화 분야를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은주 산림정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 훈련의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군,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 선정

귀농귀촌실태조사 활용 청년인구 유입 활성화 높은 평가

곡성군은 17일 "지난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8월에 개최된 호남권 지역통계 공모전에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인교육 종합안내 콘텐츠 구축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 유도'를 주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권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통계의 활용성과 창의성을 평가했다. 지역통계 우수 심사는 ▲지

역통계 정책활용 사례 ▲지역통계 개발과 개선 실적 ▲기술지원과 컨설팅 참여도 ▲통계역량 강화 노력 ▲지역통계 수요조사 협조도 등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실태조사 활용에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인교육 종합안내 콘텐츠 구축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의 정착유도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의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김병철 기자

화순 남산공원에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축제

22-24일...대형 트리·야간 경관 갖추고 이색 행사도 '풍성'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화순 남산공원에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화순에서 최초로 열리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색적인 기획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도심 축제 공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무대인 남산공원에는 10m 대형 스타 트리를 설치하고, 야간 경관 조명과 다양한 빛 조명물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축제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와글와글 밤시장(22일) ▲크리스마스 마켓 ▲제즈, 어린이극, 탕고 등 크리스마스 관련 공연 ▲마칭

밴드와 외국인 댄서가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23일) ▲체험 공간 및 포토존 등이 마련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다양한 공예품과 겨울 물품이 판매되며 푸드존에서는 빵소, 타코, 바베큐 등 이국적인 연말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남산공원 야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